기자간담회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협력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이 변화를 수용하고 따라잡고 하는데 필요한 요소

다자틀 내 안전보장은 글자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안전보장이라는 말을 직접 부시 미 대통령이 입에 올린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미간 공동발표 문서에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은 6자 틀 속에서 한·미, 한·미·일, 또 중·러를 포함해 5자간에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망은 좋게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꽤 아끼는 가운데 먼저 6자틀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대화의 방법을 유보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상당히 진전된 표현을 해주고, 북한 지도부가 존중하고 한 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열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일 공조테이블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논의되고 그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펙은 세계질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적극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 앞서 가느냐를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유무역협

정 얘기가 주제였습니다. 한국은 93~94년 WTO 여파로 큰 충격이 있었지만 무난히 이를 넘겼습니다. 이후 금융시스템을 개방해 외자가 급하게 들어와 환란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품시장, 금융시장 개방이 이어졌고 IMF 이후 투자시장이 개방됐고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업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 확산추세인 이 문제에 대해 한국도 과감하게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함이 있지만 세계시장의 흐름에 크게 발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적 상황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국제적 흐름에 과감하게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미 정상간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입니다.

빠른 세계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우리의 변화가 필요

세계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국가입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시스템이 세계시장에 결합돼 있습니다. 전체시장이 변화할 때 뒤떨어져선 안 됩니다. 우리의 제도, 문화, 기술에 많은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인천자유구역 개청식에서도 과감한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몇가지 당부하고 왔습니다.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논의하고 타협해 가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가 더디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이해관계, 갈등과 대립구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하면 갈등구도가 복잡하고 아주 강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정책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도 변화를 추진할만한 리더십이 제대로 될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북핵을 위해서도 한미관계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

건건이 교환하는 방식이 외교는 아닙니다. 더욱이 한·미처럼 오랜 관계, 앞으로도 깊은 관계를 가져갈 나라간에 하나하나 교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국내외 모두의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우선해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생각과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한·미간에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아주 돈독한 협력관계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국가간에는) 냉기류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기복이 있지만 북핵 해결 국면만큼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독하고 긴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북핵 공조엔 정말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파병 이전에 진정으로 이라크에 도움이 되려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부대편성과 역할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라크 국민과 아랍 국가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면 외교적 갈등이나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도) 터키 등은 인접국가여서 현지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도 일본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긴장하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인접국가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는 변화되어야

재신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일이고 말을 꺼내면 되도록이면 약속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과반 정당에서 취임후 4개월부터 재신임을 시사하는 말이 나

왔습니다. 심지어 퇴진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기는 측근 비리 때문이지만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시기 문제도 요청대로 한 것입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 천상 만나서 의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를 바꾸자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기 문제를 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대선자금 다 밝히라고 했다는데, 나만 밝히면 그럼 끝나나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보려 합니다. 한국의 정치 공방은 해결 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 무슨 일이든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은 4당 대표를 한꺼번에 만나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시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세계 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일부의 어려움, 반대가 있더라도 대화로 조정해서 세계 흐름에 맞추어 변화를 시도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덕함과 역량부족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협력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변화를 수용하고 따라잡고 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정치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